생명현상 상호작용…불법은 환경보전의 등불

자연의 조화

다행히 오늘날 아직 부처님의 가르침이 남아있고 그것을 실천하는 참사람이 있다는 사실과 아직도 그러한 참사람의 터전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환경과 생태윤회의 거치른 바다에 유일한 등불이 되고 있다.

몇해전 열반하신 성철스님의 무소유적 삶은 평생입은 누더기 한 벌과 지팡이 덧버선 몽당연필등 10여점으로 이루어졌다.

깊은 산과 숲속에서 다 떨어져 누더누더 기운 법의가 매스컴에 보도되었 때, 그것이야말로 140여과의 영롱한 사리보다도 살아 생전의 그분의 형형한 자연의 눈빛(眼光)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우리의 산하에 아직도 많은 스님과 불교도들이 이러한 참사람의 길을 가고 있는 한, 환경문제는 그렇게 비관적인 것은 아니다.

성철 큰 스님의 발문가운데 유명한 말이 있다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시산시수(是山是水)의 설법이다. 그런데 이말은 실제 중국의 청원유신(靑原惟信) 천사의 설법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종합한 것이다. "노승이 30년전 참선하기 이전에는 산은 청산이요 물은 녹수였다. 그러던 것이 그 뒤에 어진 스님을 만나 깨침에 들어서고 보니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더니, 마침내 진실을 깨치고 보니 산은 의연코 산이요 물은 의연코 물이더라."

부처님의 지구 사랑

전 재 성 ②

체험이 없는 평범한 사람은 산을 산으로, 땅을 땅으로, 물을 물로, 불을 불로, 바람을 바람으로 생명을 생명으로 여겨서 마침내 그 자연들을 내것이라고 생각하고 향락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에게 유일한 지구의 환경오염으로 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 발전의 분홍색 꿈은 위기에 직면해 있고,전체주의적 공산주의 천년왕국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결국 우리에게 드러난 것은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인간의 탐욕과 하나밖에 없는 지구환경의 파괴라는 모순의 심연이다.

우리는 미친 사람이 아니라면 모두 앞에 있는 산을 보고 산이라고 여길 것이다. 그러나 참사람의 가르침을 보면 산은 산이 아니며 더구나 우리의 자아속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산이 산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산이 아닌 모든 것과의 관계속에서 산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산은 산이 아닌 모든것에 열려있으면서 서로 관계속에서 산이라고 일컬어지는 무한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바위, 나무, 흙, 흙, 물등의 각 개체를 산이라고 할 수 없고 그것을 조합해 놓았다고 해서 산이라고 부를 수 없다. 그것은 땅, 물, 불, 바람, 생명현상이 무한으로 서로 상호 작용하고 숨쉬는 무한자 연속에서 그 자신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산은 산이 아니라야만 산인 것이다. 물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물이 단지 물이라면, 우리는 증류수만 마셔도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부처님은 한방울의 물 속에도 수많은 생명현상이 공존하고 있음을 밝힌 바가 있다. 한방울의 살아있는 물방울은 땅, 물, 불, 바람, 생명현상의 일체가 함께하는 공동체인 것이다. 따라서 물은 물만이 아니므로 물인 것이다. 물은 물이 아닌 것과 분리될 수 없는 과정속에서 물인 것이다. 땅, 물, 불, 바람, 생명도 모두 무한으로 서로 상호 작용하며 살아있는 한, 참다운 땅, 물, 불, 바람, 생명이 될 수 있다.

◇ 한방울의 물 속에도 수많은 생명현상이 공존하고 있다.

'95 신행캠페인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

경전 읽기가 신행의 한 양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경전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고스란히 담겨진 법의 창고이다. 말하자면 삼보중의 하나인 법보가 담겨진 서적인 것이다. 경전을 읽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는 것이다. 경전을 단순히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전읽기를 통해 바른 불자의 삶을 꾸려나가는 토대를 마련해야한다는 것이 경전 읽기 신행의 바탕이다.

따라서 불자라면 누구나 경전을 읽어야한다. 최근 경전읽기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금주의 주제

경전읽기

그러나 경전읽기의 확대와 관련 몇가지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경전을 읽되 삶의 구체적인 행동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전을 다라니 외듯(읽듯)한다는 것이 이와 관련된 우려의 핵심이다. 경전은 그 내용의 이해와 자각을 통해 불자로서의 삶의 질을 전향시켜 나가기 위해 읽어야 한다. 경전 자체가 어떤 신앙적 힘을 지닌 주문내지는 다라니로 인식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경전의 선택에 대한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왜곡되거나 불교와는 그 기본사상이 다른 위경을 선택해 읽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일선에서 신도들을 지도하는 스님, 법사들의 꾸준한 계도가 없이는 쉽게 해결되지 못할 일이기도하다. 또 미신적 성격이 강한 일련의 위경들을 죄악스럽게 대량 출간해 '법보시 책'으로 유포하는 등의 행위도 조절되어야할 시급한 문제중의 하나이다.

경전을 읽는 것은 좋은 것이다. 읽는 자체가 공덕이라는 의식을 갖는 경우도 있지만 그 보다는 경전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파악하고 생활화 시켜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참불자의 삶은 하루 한 페이지라도 경전을 읽는데서 시작 할 수 있다. 무엇을 가르치는 종교인지도 모른채 자신이 불자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불교의 구체적인 가르침이 담긴 경전. 이제 경전읽기는 올바른 경전의 선택과 꾸준한 독서의 생활화를 통해 참다운 불자의 생활자세로 정착되어야 한다.

"바른 삶 이끌어주는 주춧돌"

주문아닌 부처님 가르침 · 생활 지침돼야

신행수첩

자유로운 삶을 향해

대불련 신흥사 수행학교

인간이 아름다운 까닭은 삶을 반성하고 참된 자아를 찾으려는 진지한 노력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철저히 혼자라야만 가능한 원초적 고독위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기에 더욱더 아름다움이 더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부처님 법에 매진하기 위해 대불련(회장 곽상인)은 오는 2월9일부터 14일까지 5박6일간 화성 신흥사에서 제4차 수행학교를 개최한다.

이번 수행학교는 '무명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운 삶을 향해'란 주제가 말해주듯 정진수행을 통한 불심과 참자아를 깨닫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탄의 날' '참회의 날' '발원의 날'로 구분한 3일간은 부처님 생애에 관한 강의와 참회한 모습으로 부처님전에 서원하게 된다.

주제토론과 단주만들기, 나눔의 시간, 등을 가진 후 올리게 될 3천배 절수행은 모든 도반들이 자신의 아집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는 지혜를 깨닫게 할 것이다.

'비(迷), 오(悟)의 차이도 깨달으면 마찬가지'라는 진리를 알게 될 수행학교에 대학생 불자들의 용맹정진을 기대한다. (02)732-0239

무명을 깨치는 길

법왕사 한글학교열어

몹시도 어려웠던 시절을 살면서 글을 배우고자 하는 뜻은 있었어도 형편이 여의치 못해 어른 세대중에는 더러 우리글을 아직도 깨치지 못한 채 글 모르는 답답한 한을 가슴에 묻어두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

대구 법왕사(주지 실상)는 "힘써 배우는 것만이 무지와 혼돈을 막을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 우리글 · 우리말 배움터 「기초 한글학교」를 마련, 26일부터 개강한다.

금생(今生)에 깨치지 못한 것은 내생(來生)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기에, 이 일은 늦었다고 저버릴 일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은 더더욱 아니기에 불연(佛緣)을 만나 밝은 혜안을 찾는 발심(發心)의 기회로 삼는다면 좋을 것이다.

수강대상은 남녀노소 제한이 없고, 강의는 법왕사 설법전에서 일주일에 2 · 3회 오후2시부터 진행된다. 대공스님 외 4분의 스님이 강의를 맡았으며 강의료는 무료.

(053)766-9088

◇ 통일신라 신문왕이 부왕 문무왕의 뜻을 이어받아 창건한 감은사지에는 3층석탑이 남아있어 신라의 숨결을 느끼게 한다.

차한잔에 마음의 여유를

월간다담, 차문화 특강

따뜻한 한잔의 차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향기있는 여유를 가져보면 어떨까!

옛부터 우리 조상들은 한잔의 차를 마시기위해 물을 끓이고 차를 달여 내면서 지극한 정성과 마음가짐을 배우고, 또 차를 통해 인생의 맛을 음미하기도 했다.

월간 다담(대표 용운)에서는 한국 차문화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한국차문화 특별강좌'를 개최한다.

범람하는 일본 차문화에 의해 설자리를 잃어가는 우리의 차문화를 지키려는 노력으로 시작된 이번강좌는 2월 첫주부터 6월말까지 계속된다.

한국 전통행다법, 한국차의 개론, 한국차문화사, 한국차의 고전 등을 주제로 총 1백회에 걸쳐 진행될 한국차문화 특별강좌는 우리전통의 멋과 맛을 더욱 깊게 느낄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것이다.(02) 737-7876

신라의 숨결느낀다

경주지역 유적 탐방

고대불교문화의 폭넓은 이해를 위해서는 역사가 고스란히 살아 숨쉬는 경주지역 신라유적답사가 제격이다.

신라문화원(원장 진병길)은 2월5일 겨울바다의 아름다움과 함께 하는 제34회 신라문화유적답사를 갖는다.

이번 유적답사는 천군동쌍탑, 장항리절터, 골굴암, 기림사, 감은사터, 이견대, 문무대왕릉 등 함월산 지구를 중심으로 일정이 짜여져 있다.

경주군 양북면 장항리에 위치한 통일신라시대 절터인 장항리사지는 2기의 석탑과 불상좌대가 매우 뛰어나다. 신라 선덕여왕 12년에 함월산 기슭에 창건된 기림사는 건칠유회좌보살상과 대적광전, 석조치미, 전남루 등의 유물 유적이 현존하고 있다. 또한 신라31대 신문왕이 부왕인 문무왕의 뜻을 이어받아 창건한 호국사찰 감은사는 현재 동서 삼층석탑이 위용을 자랑하고 있으며, 문무왕과 얽힌 전설의 현장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이다. 이밖에 이견대는 681년 신문왕이 해룡으로 화한 문무왕으로부터 만파식적과 옥대를 받은 곳으로 유명하다.

이번 유적답사는 당일 코스로 오전9시 경주 신라문화원에서 출발한다.

(0561)771-1950

불교문화 원류를 찾아서

유적 유물 중심 역사강의

우리문화 찾기 운동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주말이면 전국적으로 우리의 것 을 찾아 떠나는 이들로 줄을 잇는가 하면 문화재가 있는 곳은 새로운 명소로 각광을 받고있다. 이러한 가운데 박물관에서도 문화재에 관한 강좌를 마련하는 등 우리것을 찾고자 하는 이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립경주박물관의 경우 매주 토요일 '경주박물관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초 · 중등생을 위해서는 초급반을 그리고 고교 대학생 및 일반인을 위한 중급반을 개설해 유적 유물중심의 역사강의를 하고 있다. 또한 현장답사와 삼국유사등 원서강독도 진행하고 있다.

(0561)772-5194

"사경통해 보현행원 다지자"

안성 도피안사 반야심경 사경책 무료보급

한권의 경전을 옮겨적는 일은 한사람의 전법자로 비유된다. 그래서 기도의 방법으로 사경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반야바라밀 결사도량인 안성 도솔산 도피안사도 결사수행으로 반야심경 사경을 시작했다.

지난 8일 성도재일을 맞아 회원들의 수행법으로 반야심경 사경이 선택된 것이다. 반야바라밀결사 법주 광덕스님은 "반야심경 사경을 통해서 반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믿음을 성취할 수 있고 보현행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한편 도피안사는 사경수행의 활성화를 위해 사경책을 무료보급하고 있다. 이책에는 사경 방법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0334)676-8700

나와 이웃 그리고 자연은 하나

생활속의 불교 ⑭

협찬: 대우자동차 전농판매

진화냐 퇴화냐의 갈림길

진화와 창조는 다 한마음의 나툼이다. 진화란 마음의 차원이 높아진 것을 뜻한다.

마음의 차원이 달라짐으로 해서 육신의 기능도 발달하게 되고 모양 역시 달라지는 법이다.

창조란 곧 마음의 설계에 의해 밖으로 나타남을 말한다.

마음의 설계에 따라 진화된 모양으로 드러나게 되니 진화이면서 창조요, 창조이면서 진화인 것이다.

기어다니던 벌레가 한번 날아보기를 바랐을 때 그 날고 싶다는 마음이 곧 진화력인 것이니 수억겁 진화의 과정에서 보면 환경의 영향을 받아 적응하는 일면이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꼬리가 있었는데 그 꼬리가 점차 불필요하다고 느끼게 됨으로써 꼬리는 사라지게 되었고, 날고 싶다, 날아야만 하겠다고 했을 때 날개 달린 모습으로 차원을 바꾸게 된 것이다.

사람으로 태어났다 해도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냥저냥 살아서는 안 된다. 진화와 창조가 다 마음의 나툼일진대 퇴화 또한 같다.

사람으로 태어나 차원 높은 설계를 할 줄 모른다면 창조력은 시들고 그러므로 부처님의 엄청난 가르침을 알지 못하게 된다.

진화의 완성은 대자유, 무량공덕의 부처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은 그 완성으로 가는 과정에 있다. 그러기에 모든 생명은 우리의 도반이다. 삼계는 그런 구도의 형제들로 가득찬 대도량이다.

부처님은 고로 삼계도사인 것이다.

대우자동차 전 차종 특별판매

대상차종

아카디아 · 브로엄 · 프린스 · 에스페로
씨에로 · 르망 · 티코 · 다마스 · 라보

· 리스 할부
· 인도금 없이 전액 자체 할부(국민차)
· 차종에 따라서 무이자 할부도 가능(한정판매)

대우자동차 전농 판매 전화 : (02) 215-1472 215-1071 팩스 : (02) 215-1076